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8 PANAETIUS THE CONNECTOR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Panaetius the Connector」 (원서 PDF 61~68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8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이을 수 있는가."

파나이티오스는 외교관의 아들이었고, 뜻밖의 외교적 인연으로 철학을 만났다. 배우고, 적용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했다. 그리스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된 스키피오의 곁에서 스토아와 로마를 하나로 엮었고, 사람마다 명예롭게 다해야 할 배역이 있다고 가르쳤다. 공부도 같다. 원리를 아는 데서 멈추면 반쪽이고, 그 원리를 실제 문제에 이어 붙일 때 실력이 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7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타고난 자원과 공공선(66쪽 ¶4~¶7) / 덕은 자족적이지 않다 · 균형 속의 좋은 삶(68쪽 ¶2~¶3) / 알렉산드리아 일화(64쪽 ¶6 ~ 65쪽 첫 줄) / 잇는 사람의 뜻(66쪽 ¶2)
4~5	**밑줄 함축 의미**	came of age / absorb ~ into its DNA / Learn. Apply. / footed the bill / a breeding ground / a kind of weaver / a born globalist / no wet blanket / a fact-finding mission / the family business / when you're connected / a master networker / a rampart / the Venus of Cos
6	지칭 추론	he·his가 Panaetius's father·Crates·Panaetius 사이를 오가는 62쪽 ¶2 / him·he가 Scipio·Panaetius를 오가는 64쪽 ¶3 / it·his가 책·반란·안티파트로스를 가리키는 65쪽 ¶3 / they(68쪽 첫 줄의 a guilty client)
7~8	내용 일치·불일치	연도(185·155·140·138·134·129·109 BC) / 13년 앞선 크라테스 / 유학 약 5년 · 47세 · 거의 2년의 사절단 · 300년 · 2,000년 · 20년 / 경유지(이집트·키프로스·시리아·로도스·그리스·소아시아) / 시민권 사양 / 점술가 추방(64쪽 ¶3~¶5) / 스키피오의 죽음 이후(68쪽 ¶4~¶7)
9~10	**어법**	may have p.p. · spend + 시간 + -ing · 독립분사구문(having been p.p. / 주어 남은 분사구문) · with whom · neither A nor B could have p.p. · could not have been + 비교급 · insist on + 의미상 주어 + being p.p. · let alone · or + would not have p.p. · so too did + S · not so much A as B · lest + 원형 · Not only + 도치 · It is ~ that 강조 — 9번은 스키피오 서클(63쪽 ¶1~¶3), 10번은 미완성 책(67쪽 ¶3)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fortuitous↔deliberate · provincialism↔cosmopolitanism · moderating↔intensifying · declined↔accepted · banned↔welcomed · revolutionary↔conservative · flouted↔observed · inborn↔acquired · uncredited↔credited · arcane↔plain · mellower↔harsher · lucid↔obscure · self-sufficient↔dependent — 11번은 67쪽 ¶4 ~ 68쪽 ¶1
12	빈칸 추론	serving the public good / Learn. Apply. / a born globalist / a moderating effect / not merely theoretical / prosopon / balance / connecting timeless principles with real people / aphormai / prepared for the blows(66쪽 ¶8 ~ 67쪽 ¶2) / virtue was not self-sufficient / All things end
13	문장 삽입	그라쿠스 사건 단락(65쪽 ¶2~¶3): 귀환과 집필 → 부패 재판 → 블로시우스의 반란 → 파나이티오스는 반대편 → 두 스토아의 충돌 / 스키피오의 죽음과 훈련(68쪽 ¶4~¶6)
14	무관한 문장	네 가지 역할과 군인의 예(65쪽 ¶4 ~ 66쪽 ¶2)에 무관한 소재 끼워 넣기 / 판크라티온 인용(67쪽 인용) / 동방 사절단의 경유지(64쪽 ¶3)
15	순서 배열	아테네의 라일리우스 → 스키피오 → 스키피오 서클(62쪽 ¶7 ~ 63쪽 ¶1) / 크라테스 → 린도스의 제사장 → 아테네 유학 → 로마(62쪽 ¶2~¶5)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초기 스토아의 지역주의와 타고난 세계인(63쪽 ¶8 ~ 64쪽 ¶2) / 직조공 파나이티오스(63쪽 ¶6) / 미완성 책의 평가(67쪽 ¶3)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일곱 개나 나오는 장이다(185 · 155 · 140 · 138 · 134 · 129 · 109 BC). 155 BC는 디오게네스의 사절단과 파나이티오스의 첫 공직이 겹치고, 129 BC는 스키피오와 안티파트로스가 함께 죽은 해다.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declined ↔ accepted citizenship, banned ↔ welcomed soothsayers, not self-sufficient ↔ sufficient, uncredited ↔ credited, unfinished ↔ finished). 동사와 부정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Panaetius the Connector」 (62~68쪽)

전기형(뿌리 → 배움과 적용 → 서클 → 세계인 → 동방 사절단 → 집필과 정치 → 네 가지 역할 → 판크라티스트 → 유산과 끝). 핵심 축은 **지역(provincialism) vs 세계(globalism)**, 그리고 **원리(principles) vs 실제의 삶(real lives)**.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2 ¶1~¶3	뿌리	스토아는 아테네에서 나서 로마에서 성숙 / 155 BC 디오게네스보다 13년 앞섰을지 모르는 말로스의 크라테스 / 아버지의 사절 활동과 겹친 우연 → 페르가몬에서 크라테스의 제자
62 ¶4~¶6	배움과 적용	공공선에 봉사하는 길 / 155 BC 린도스의 제사장(첫 공직) / 아테네에서 디오게네스 · 안티파트로스에게 약 5년 / "배우고, 적용하라"
62 ¶7 ~ 63 ¶1	서클	라일리우스 →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 / 스키피오의 저택에서 모인 스키피오 서클 / 지도자 세대의 산실(루틸리우스 · 폴리비오스)
63 ¶2~¶5	영향력	스승들도 상상 못 한 접근 / 그리스 세계 최고 권력자의 통역자 · 조언자 · 벗 / 벨레이우스 · 키케로 · 플루타르코스의 증언 / 정책을 이끄는 일
63 ¶6~¶7	인물 규정	창시자 제논 · 매듭을 자른 크리시포스 · 절대주의의 아리스토 · 규칙의 안티파트로스 vs 엮는 사람(weaver) 파나이티오스 / 시기가 절묘
63 ¶8 ~ 64 첫 줄	배경	초기 스토아의 지역주의(제논의 고향 새김 · 클레안테스 · 디오게네스의 귀환) / 세계 제국에 맞지 않는 태도
64 ¶1~¶2	세계인	로도스 → 페르가몬 · 로마 / 지중해 여행 · 다양한 인연의 통합 / 마르쿠스의 '세계 시민' / 그러나 아테네 시민권은 사양
64 ¶3~¶4	동방 사절단	스키피오의 야망을 누그러뜨림 · 흥을 깨지는 않음 / 140 BC 봄 동방 사절단 · 경유지 / '실태 조사 사절단' / 오늘날도 같은 균형의 고민
64 ¶5	가업과 자유사상	외교라는 가업을 잇고 스토아를 세계 무대로 / 점술가 · 점성술사 거부 → 스키피오가 군대에서 추방(아마 그의 조언)
64 ¶6 ~ 65 ¶1	일화	알렉산드리아의 군중과 토가 / '뚱보' 프톨레마이오스 8세 / "왕이 걷는 모습을 보았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65 ¶2~¶3	집필과 정치	138 BC 귀환 · 47세 / 『적절한 행위에 관하여』 / 부패 재판(코타 · 그라쿠스) / 혁명가 블로시우스 vs 보수주의자 파나이티오스
65 ¶4	평가 · 핵심 개념	키케로: 도덕적 의무에 관한 가장 철저한 논의 / 관습을 무시한 선배들과 달리 각자의 프로소폰(배역)
65 ¶5 ~ 66 ¶1	공식	네 가지 역할(인간 공통 · 다이몬 · 사회적 지위 · 스스로 한 약속) / 군인의 예 / 국가 원수와 거지도 균형의 필요는 같음
66 ¶2~¶3	잇는 사람	인맥가이면서, 원리를 실제 삶에 잇는 사람 / 나는 누구인가 — 고대인의 질문
66 ¶4~¶7	타고난 자원	지도자가 되려는 타고난 욕구 / 각자의 방식으로 공공선 / 아포르마이 / 특권을 넘어 더 넓은 무대로
66 ¶8 ~ 67 ¶2	판크라티스트	달리기 선수와 다른 모델 / 겔리우스의 인용: 늘 깨어 있는 정신 / 마르쿠스 · 에픽테토스가 이어 씀 / 삶 = 상대 · 운명과의 실제 싸움
67 ¶3 ~ 68 첫 줄	미완성과 유산	책은 미완 / 루틸리우스: 코스의 비너스 / 300년의 번성 / 유죄 의뢰인의 변호
68 ¶1~¶3	문체와 사상	단순하고 명료한 문체 / 덕은 자족적이지 않다(힘 · 건강 · 물질적 자원) / 균형 속의 좋은 삶
68 ¶4~¶7	결말	129 BC 스키피오의 죽음 · 아들의 죽음에 대비하는 훈련 / 모든 것은 끝난다 / 같은 해 안티파트로스 사망 → 아테네의 수장 20년 / 109 BC 사망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스토아의 무대	아테네의 강당(the Stoa) · 아고라	로마 권력의 지렛대 · 세계 무대(the world stage)
세계관	초기 스토아의 지역주의(provincialism)	타고난 세계인(a born globalist) · 세계 시민
소속	세계로 넓어진 인연(페르가몬 · 로마 · 동방)	고향 하나면 충분(아테네 시민권 사양)
공부의 방식	책 속의 난해한 생각 찾기	배우고 적용하기의 반복(Learn. Apply.)
스키피오와의 관계	야망 · 열정(frenetic)	온화함과 원칙(mildness and principles)으로 균형
신과 점술	신들이 인간사에 개입한다는 믿음 · 제사와 의식	자유사상가 — 점술가 · 점성술사 거부
그라쿠스 사건	혁명가 블로시우스(안티파트로스의 제자)	보수주의자 파나이티오스(지배층의 질서 유지)
사회 관습	관습을 대놓고 무시(이전 스토아)	각자의 프로소폰을 명예롭게 다함
잇는 사람의 뜻	사람을 잇는 인맥가(master networker)	원리를 실제 사람의 실제 삶에 잇는 사람
운동선수 비유	크리시포스의 달리기 · 안티파트로스의 궁수 · 아리스토의 창던지기	파나이티오스의 판크라티스트 — 실제 싸움(combat)
덕과 행복	덕만으로 충분(제논)	덕은 자족적이지 않다 — 힘 · 건강 · 물질적 자원
철학의 문체	난해한 용어 · 가혹한 교리 · 까다로운 논리	단순 · 직설 · 부드러운 교리 · 명료한 문체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Panaetius of Rhodes	B. 185 BC – D. 109 BC · 로도스(Rhodes) 출신 · 발음 Pan-EYE-tee-us · 스토아를 세계에 알린 위대한 사절 · 외교관의 아들
Crates of Mallus	페르가몬 출신 스토아 철학자 · 디오게네스 사절단보다 **13년** 앞서 마케도니아 전쟁 중 자국 이익을 지키러 로마로 · 넘어져 다리 골절 → 몇 달 회복하며 강론 · 파나이티오스의 첫 스승(페르가몬)
155 BC	디오게네스의 사절단이 스토아를 로마에 소개한 해 = 파나이티오스가 **린도스**의 포세이돈 히피오스 제사장에 임명된 해(첫 공직)
아테네 유학	디오게네스와 그의 제자 안티파트로스에게 · 약 **5년** · '철학 박사 과정'에 비유 / Learn. Apply. — 스토아의 방식
Gaius Laelius	아테네에서 만난 디오게네스의 동료 제자 · 함께 공부를 이어 감 · 그를 통해 스키피오를 만남
Scipio Aemilianus	로마의 위대한 장군 · 가장 강력한 가문의 양자 · 그리스 사상 · 문학 애호가 · 해군 파견대에서 함께 복무 · 그리스 세계 최고 권력자 · **129 BC** 사망
the Scipionic Circle	세 사람(파나이티오스 · 라일리우스 · 스키피오)의 철학 모임 · 스키피오의 저택 · 비용 = 스키피오, 지적 양식 = 파나이티오스 · 비유: 1차 대전 뒤 프랑스(헤밍웨이 · 스타인 · 피츠제럴드) · 페이팔(틸 · 호프먼 · 머스크)
Rutilius Rufus / Polybius	서클에 자주 참석 · 루틸리우스 = 로마의 부패 문화에 맞선 인물, **다음 장**의 주인공, 134 BC 누만티아 전쟁에서 스키피오를 섬김 · 폴리비오스 = 역사가
Velleius · Cicero · Plutarch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 『로마사』: 스키피오는 집에서도 전장에서도 **폴리비오스와 파나이티오스**를 늘 곁에 둠 / 키케로: 대화편 곳곳에 서클의 장면 / 플루타르코스: 스키피오의 호의로 두 사람이 고향에 큰 이익
weaver	제논(창시의 천재) · 크리시포스(아카데미의 매듭을 자르는 사람) · 아리스토(실용 대신 절대주의) · 안티파트로스(일상의 규칙)와 대비 · 스토아와 로마의 윤리적 관점을 엮음
provincialism	제논 = 복원 비용을 댄 건물에 고향 이름을 새기게 함 · 클레안테스 = 검소해서 여행 없음 · 디오게네스 = 로마에서 서둘러 아테네로 귀환
a born globalist	로도스 → 페르가몬 · 로마 유학 · 지중해 대부분 여행 · 동방에 매료된 로마인들 / 마르쿠스의 '세계 시민'(『명상록』)은 그가 처음 낸 길을 따른 것
citizenship	아테네 시민권을 **정중히 사양** —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도시 하나면 충분하다"
140 BC 동방 사절단	봄 · 스키피오의 요청 · 원로원이 보냄("사람들의 폭력과 무법을 살피러") · 이집트 · 키프로스 · 시리아 · 로도스 · 그리스 · 소아시아 · 거의 **2년** · 실태 조사 사절단 · 2,100여 년 전
soothsayers	자유사상가 · 점술가 · 점성술사의 이론 거부 · 스키피오가 그들을 군대에서 추방 — **아마(likely)** 그의 조언
Alexandria / Ptolemy VIII	수행원 = 파나이티오스와 하인 **다섯** · 군중이 토가를 벗으라 외침 · '뚱보' 프톨레마이오스 8세 · "우리 덕분에 왕이 걷는 모습을 보았다"(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 로마인의 어록』)
138 BC / 47세	스키피오와 로마로 귀환 · 페르가몬 · 아테네의 공부와 로도스의 공직(해군 복무 포함)을 마친 뒤 · 글쓰기 시작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	공적 삶의 윤리적 행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책 · 키케로: 도덕적 의무에 관한 "단연 가장 철저한 논의" · 끝내 미완(이유 모름) · 겔리우스는 『On Duties』 제2권을 인용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Gracchus affair	코타의 갈취 사건과 함께 스키피오가 기소 · 처남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 빈민에게 토지 분배 · 안티파트로스의 제자 **블로시우스**(혁명가) vs 파나이티오스(보수주의자)
prosopon / daimon / aphormai	프로소폰 = '성격' 또는 '배역' · 다이몬 = 개인의 재능 · 소명 · 아포르마이 = 타고난 자원
네 가지 역할	(1) 인간 공통 (2) 개인의 다이몬 (3) 사회적 지위의 우연(가족 · 직업) (4) 스스로 한 결정과 약속 / 예: 군인 · 국가 원수 · 거지
pankratist	판크라티온(그리스식 권투) 선수 · 아울루스 겔리우스의 기록 · 마르쿠스 · 에픽테토스가 출처 없이 씀 · 크리시포스의 달리기 · 안티파트로스의 궁수 · 아리스토의 창던지기와 대비
Venus of Cos / 300년 / 2,000년	아펠레스의 미완성 작품에 빗댄 루틸리우스의 찬사 · 로마 정치에서 스토아의 번성 **300년** · 유죄 의뢰인 변호 = 지난 **2,000년** 법 체계의 기둥
Diogenes Laërtius	파나이티오스 = 덕이 자족적이지 않다고 믿은 **최초의** 스토아 — 힘 · 건강 · 물질적 자원도 필요(스승 디오게네스와 다른 인물)
129 BC / 20년 / 109 BC	스키피오 사망 · 같은 해 안티파트로스 사망 → 아테네로 돌아가 학파의 수장 · **20년** 더 봉사 · 109 BC 사망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Panaetius the Connector」 (원서 PDF 62~68쪽) · 8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8-1 외교가 이어 준 철학, 배우고 적용하라 62쪽 ¶1~¶6

원문 위치 원서 62쪽 ¶1~¶6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came of age and to power	동사 came 공유(come of age / come to power)
◆	¶1 첫 문장	came of age	밑줄 의미: 성숙하다, 제 힘을 갖추다
◆	¶1 둘째 문장	absorb the philosophy into its DNA	밑줄 의미: 근본 깊숙이 받아들이다
▲	¶1 셋째 문장	may have made a brief appearance	may have p.p. = 과거 추측
★	¶1 셋째 문장	thirteen years earlier	숫자 — 155 BC보다 13년 앞
▲	¶2 첫 문장	Breaking his leg in a fall	분사구문(원인)
▲	¶2 첫 문장	spent months recuperating and discoursing	spend + 시간 + -ing
◆	¶2 셋째 문장	Did he attend his lectures?	지칭: he = 아버지, his = 크라테스
▲	¶3	the future diplomat … having been introduced	의미상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완료 수동)
●	¶3	fortuitous	반전 후보 → deliberate
▲	¶4 첫 문장	were designed to prepare him to follow	be designed to V + prepare A to V
★	¶4 첫 문장	serving the public good	빈칸·요지 후보(콜론 뒤 = the track)
★	¶4 둘째 문장	In 155 BC … sacrificial priest	연도·직책 — 서답형 후보
▲	¶5 첫 문장	Whatever he learned …, it became clear	양보의 whatever + 가주어 it
▲	¶5 셋째 문장	It's as if Panaetius returned	as if = 마치 ~인 것처럼(비유)
◆	¶6	Learn. Apply.	밑줄 의미: 배움과 적용의 반복

내용

스토아는 아테네에서 태어났지만 로마에서 성숙하고 힘을 얻었다. 그 이야기는 로도스의 파나이티오스의 삶을 닮았다. 그는 스토아를 세계에 알린 위대한 사절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 기원전 155년 디오게네스의 사절단이 성장하는 제국에 스토아를 소개했고, 제국은 이 철학을 자기 DNA 속에 흡수했다. 그러나 스토아는 그보다 13년 앞서 로마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페르가몬 출신의 스토아 철학자인 말로스의 크라테스가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지키려는 사절로 로마에 갔을 때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크라테스는 몇 달 동안 회복하며 적은 수의 로마인 청중에게 철학을 강론했다. 마침 파나이티오스의 아버지도 같은 때 외교 사절로 로마에 와 있었다. 아버지가 강의를 들었을까, 시와 주석의 형태로 퍼진 강론의 사본을 집에 가져왔을까, 아니면 아들을 데려와 크라테스를 직접 만나게 했을까? 저자는 답하지 않고 질문으로 남긴다. 곧 젊은 파나이티오스는 페르가몬에서 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다. 훗날의 외교관이자 '잇는 사람'이 뜻밖의 외교적 인연으로 철학에 입문한 것이다. 이 공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디오게네스와 안티파트로스가 후대 스토아에게 닦아 놓은 길, 곧 공공선에 봉사하는 길로 그를 준비시켰다. 기원전 155년 그는 린도스에서 포세이돈 히피오스의 제사장에 임명되었다. 평생 맡을 많은 공직 가운데 첫 번째였다. 이 일을 하며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는, 로마 사절단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디오게네스와 그의 제자 안티파트로스에게 배우러 아테네로 갔다. 철학 박사 과정을 밟으러 돌아간 셈이다. 약 5년의 공부를 마친 그는 곧장 현실 세계로 돌아가 로마의 가장 높은 영향력과 권력의 자리에서 배운 것을 적용했다. 배우고, 적용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적용한다. 이것이 스토아의 방식이다.

어법

- **Stoicism was born in Athens, but it came of age and to power in Rome** : came of age and (came) to power — 동사 came 하나를 두 표현이 함께 쓴다. come of age = 성숙하다, come to power = 권력을 얻다.
- **But it actually may have made a brief appearance thirteen years earlier when Crates ~ was sent on his own mission to Rome to protect his country's interests** : may have p.p. = ~했을지도 모른다(과거 추측). must have p.p.로 바꾸면 단정이 되어 뜻이 달라진다. to protect = 목적의 to부정사.
- **Breaking his leg in a fall, Crates spent months recuperating and discoursing on philosophy** : 분사구문(= Because he broke his leg). spend + 시간 + -ing. recuperating과 discoursing은 병렬.
- **Did he attend his lectures? Bring home copies of the discourses that had spread through Rome ~?** : 둘째 질문은 앞 질문의 Did he가 생략된 형태라 동사원형 Bring으로 시작한다. had spread = 대과거.
- **the future diplomat and connector having been introduced to philosophy through a fortuitous diplomatic connection** : 주절 주어(Panaetius)를 다시 가리키는 명사구를 의미상 주어로 둔 분사구문. having been p.p. = 주절보다 앞선 일 + 수동(입문'된' 쪽).
- **clearly they were designed to prepare him to follow in his father's footsteps and into the track that Diogenes and Antipater had set for future Stoics: serving the public good** : be designed to V. prepare A to V. follow in ~'s footsteps = ~의 뒤를 잇다.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set의 목적어 자리가 빔). 콜론 뒤 동명사구 = the track의 내용.
- **Whatever he learned on this job, it became clear to Panaetius that he needed more formal education as well** : Whatever = No matter what(양보 부사절).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 **It's as if Panaetius returned to get his PhD in philosophy ~ and then went right back to the real world once more, where he got to work applying what he'd learned** : as if = 마치 ~인 것처럼. returned / went 병렬. 콤마 + where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real world). what he'd learned = what he had learned(대과거).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me of age	성숙하다, 성년이 되다	mature	—
mirror (v.)	그대로 닮다, 비추다	reflec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mbassador	대사, 사절	envoy	—
absorb	흡수하다	take in	reject
recuperate	회복하다	recover	deteriorate
discourse (v.)	강론하다	lecture	—
convalescence	회복기	recovery	relapse
fortuitous	뜻밖의, 운 좋은	lucky, accidental	deliberate
follow in one's footsteps	~의 뒤를 잇다	succeed, follow the path of	break away
appoint	임명하다	assign, name	dismiss
formal	정식의, 체계적인	official, structured	informal
protégé	(아끼는) 제자	disciple	mentor
apply	적용하다	put into practice	—

내용 일치 디오게네스의 로마 사절단 = 기원전 155년 · 크라테스는 그보다 13년 앞섰을지도 모름(may have) · 말로스 출신, 페르가몬의 스토아 철학자 · 아버지가 강의를 들었는지는 알 수 없음(질문으로만 제시) · 기원전 155년 린도스의 제사장 = 첫 공직 · 아테네 유학 약 5년(디오게네스 · 안티파트로스). **지칭** ¶2 셋째 문장 he = 파나이티오스의 아버지, his lectures = 크라테스의 강의 / ¶2 마지막 문장 his son = Panaetius, send him의 him = 그 아들 / ¶4 this early Stoic = Crates.

> **한 줄 요약** 외교관 아버지가 이어 준 인연으로 크라테스에게 철학을 배운 파나이티오스는 공직과 아테네 유학을 오가며 '배우고 적용하는' 스토아의 길을 걸었다.

8-2 스키피오 서클 62쪽 ¶7 ~ 63쪽 ¶5

원문 위치 원서 62쪽 ¶7 ~ 63쪽 ¶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2쪽 ¶7 첫 문장	a fellow student … named Gaius Laelius, with whom	과거분사 named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62쪽 ¶7 둘째 문장	Scipio Aemilianus, one of …, an adopted son … and a lover	동격 명사구 셋
▲	63쪽 ¶1 첫 문장	a kind of philosophical club—known to … —that would meet	삽입 분사구 + 주격 관계대명사
★	63쪽 ¶1 첫 문장	the Scipionic Circle	서답형 · 빈칸 후보
◆	63쪽 ¶1 둘째 문장	Scipio footed the bill	밑줄 의미: 비용을 댔다
▲	63쪽 ¶1 넷째 문장	Not unlike the way that …, or how …	the way that / how 병렬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3쪽 ¶1 넷째 문장	a kind of breeding ground	밑줄 의미: 인재를 길러 내는 터전
▲	63쪽 ¶1 다섯째 문장	who defied … and who you will meet	관계절 병렬(둘째 who = 목적어 자리)
▲	63쪽 ¶1 마지막 문장	The historian Polybius was too.	was (often present) too의 생략
▲	63쪽 ¶2 첫 문장	neither …, nor …, could have imagined possible	neither A nor B + could have p.p.
●	63쪽 ¶2 셋째 문장	as vassals	반전 후보 → as rulers
▲	63쪽 ¶3 첫 문장	debate just how often … and how direct	간접의문문 병렬
▲	63쪽 ¶3 넷째 문장	describes Scipio as being deeply devoted to	describe A as -ing / be devoted to
▲	63쪽 ¶4 둘째 문장	not only had no doubts …, but tell us	not only A but (also) B
◆	63쪽 ¶4 셋째 문장	conferred great benefits upon their native States	밑줄 의미: 고향을 이롭게 함
★	63쪽 ¶5	directing policy and shaping powerful decisions	요지 후보

내용

아테네에서 디오게네스에게 배우던 시절 파나이티오스는 같은 제자 가이우스 라일리우스를 만나 함께 공부를 이어 갔다. 라일리우스를 통해, 그리고 뒤에는 해군 파견대에서, 그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자 가장 강력한 가문의 양자이며 그리스 사상과 문학을 사랑한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누스를 만나 함께 복무했다. 로마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늘날 역사가들이 '스키피오 서클'이라 부르는 일종의 철학 모임을 만들어 스키피오의 거대한 저택에서 스토아 철학을 토론했다. 비용은 스키피오가 대고, 지적 양식은 파나이티오스가 댔다. 많은 사람이 이 토론에 참여해 영향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뒤 프랑스의 국외 거주자 모임이 헤밍웨이 · 스타인 · 피츠제럴드를 길러 내고 페이팔이 피터 틸 · 리드 호프먼 · 일론 머스크를 배출했듯, 이 서클은 영향력 있는 스토아와 한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 낸 터전이 되었다. 로마의 부패 문화에 맞선 다음 장의 주인공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와 역사가 폴리비오스도 자주 자리했다. 파나이티오스의 아버지도, 스승 크라테스와 디오게네스도 상상하지 못한 영향력과 접근이었다. 스키피오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의 왕들이 봉신처럼 그와 로마에 복종하는 동안 파나이티오스는 통역자이자 조언자이자 믿을 만한 벗이었다. 오늘날 일부 역사가는 서클이 얼마나 자주 모였고 영향이 얼마나 직접적이었는지 따지지만, 고대에는 그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벨레이우스 파테르쿨루스는 스키피오가 집에서도 전장에서도 폴리비오스와 파나이티오스라는 두 천재를 늘 곁에 두었다고 기록했고, 키케로는 대화편 곳곳에 이 모임의 장면을 넣었으며, 플루타르코스는 두 사람이 스키피오의 호의를 통해 고향에 큰 이익을 안겼다고 썼다. 정책을 이끌고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빚는 일, 파나이티오스가 준비해 온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어법

- **Panaetius met a fellow student of Diogenes named Gaius Laelius, with whom he would continue to study** : named = '~라는 이름의'(과거분사 후치 수식). with whom = 전치사 + 관계대명사(study with Laelius). 변형 → with that은 오답(that은 전치사 뒤에 못 옴).

- **these three men then formed a kind of philosophical club—known to historians today as the Scipionic Circle—that would meet in Scipio's enormous houses** : 대시 사이 = 삽입된 과거분사구(be known as). that = club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would = 과거의 반복적 습관(모이곤 했다).
- **Scipio footed the bill, Panaetius provided the intellectual nourishment.** : 접속사 없이 콤마로 이은 두 절의 대구(문체상의 선택). foot the bill = 비용을 대다.
- **Publius Rutilius Rufus, who defied Rome's culture of corruption and who you will meet in the next chapter, was often present** : who절 두 개의 병렬. 둘째 who는 meet의 목적어 자리(격식체는 whom). 주어 Rufus – 동사 was.
- **It was a form of influence and access that neither Panaetius's father, nor his teachers, Crates and Diogenes, could have imagined possible** :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imagine + O + possible의 O 자리가 빔). neither A nor B.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 것이다(여기서는 부정 → 상상조차 못 했을).
- **Some historians today debate just how often the Scipionic Circle met and how direct its influence was** : 간접의문문 병렬: how often + S + V / how + 형용사 + S + V. 변형 → how direct was its influence는 오답(간접의문문은 평서문 어순).
- **Later writers like Plutarch not only had no doubts about the Circle, but tell us of the kind of quiet political influence Panaetius managed to exert** : not only A but B. 과거 had와 현재 tell의 시제가 다른 것은, 기록이 지금도 '전해 준다'는 뜻이기 때문. influence (that) Panaetius managed to exert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tingent	파견대	detachment, unit	—
foot the bill	비용을 대다	pay	—
nourishment	양식, 자양분	sustenance	—
nurture	키우다, 길러 내다	foster	neglect
breeding ground	온상, 길러 내는 터전	cradle, nursery	—
defy	맞서다, 거역하다	resist	obey
access	(권력에의) 접근	entry	—
vassal	봉신, 속국의 왕	subject	ruler
confidant	속을 터놓는 벗	trusted friend	—
eminent	저명한, 뛰어난	distinguished	obscure
devoted to	~에 헌신하는	dedicated to	indifferent to
sprinkle	흩뿌리다, 곳곳에 넣다	scatter	—
exert	(영향력을) 행사하다	wield	—
confer	주다, 베풀다	grant, bestow	withhold

내용 일치 라일리우스 = 아테네에서 만난 디오게네스의 동료 제자 · 스키피오 = 라일리우스를 통해, 뒤에 해군 파견대에서 · 모임 장소 = 스키피오의 저택 · 비용 = 스키피오, 지적 양식 = 파나이티오스 · 자주 참석 = 루틸리우스 루푸스 · 폴리비오스 · 두 천재 = 폴리비오스와 파나이티오스(벨레이우스) · 고향에 이익 = 플루타르코스. **지칭** 63쪽 ¶1 these three men = Panaetius · Laelius · Scipio / ¶2 answered to him의 him = Scipio / ¶3 He describes의 He = Velleius Paterculus, that he was constantly의 he = Scipio / ¶4 their native States = 폴리비오스와 파나이티오스의 고향.

한 줄 요약 아테네에서 만난 라일리우스, 그를 통해 만난 스키피오와 함께 파나이티오스는 스키피오 서클을 이루었고, 그리스 세계 최고 권력자의 조언자로서 조용하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8-3 엮는 사람, 타고난 세계인 63쪽 ¶6 ~ 64쪽 ¶2

원문 위치 원서 63쪽 ¶6 ~ 64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3쪽 ¶6 첫 문장	Where Zeno was …, while Aristo favored …	대조의 where · while
◆	63쪽 ¶6 첫 문장	the cleaver to the Academy's knots	밑줄 의미: 4장 크리시포스(아카데미 논박)
●	63쪽 ¶6 첫 문장	absolutism over pragmatic direction	반전 후보(아리스토 ↔ 안티파트로스)
◆	63쪽 ¶6 첫 문장	a kind of weaver	밑줄 의미: 서로 다른 것을 엮는 사람
▲	63쪽 ¶6 첫 문장	with one hand, … with the other	one ~ the other 대구 + 분사구문
▲	63쪽 ¶7	could not have been more essential	부정 + 비교급 = 최상의 의미
▲	63쪽 ¶8 첫 문장	It's not hard to detect	가주어 it + to부정사
▲	63쪽 ¶8 둘째 문장	insisted on his hometown being inscribed	insist on + 의미상 주어 + 수동 동명사
▲	64쪽 첫 줄	little room for travel, let alone concern	let alone = ~은커녕
●	64쪽 첫 줄	quickly returned to Athens	반전 후보 → stayed on in Rome
★	64쪽 ¶1 첫 문장	a born globalist	빈칸 · 요약 1순위
▲	64쪽 ¶1 둘째 문장	began in Rhodes but expanded when	began / expanded 병렬
◆	64쪽 ¶1 마지막 문장	a "citizen of the world"	밑줄 의미: 세계 시민(마르쿠스)
▲	64쪽 ¶1 마지막 문장	the new course … that Panaetius had first set	대과거 had set
★	64쪽 ¶2 둘째 문장	"one city was enough for a sensible man"	밑줄 · 서답형 후보(시민권 사양)

내용

제논이 창시의 천재였고 크리시포스가 아카데미의 매듭을 자르는 사람이었으며, 아리스토가 실용적 지침보다 절대주의를 택하고 안티파트로스가 반대로 일상의 규칙을 세우려 했다면, 파나이티오스는 일종의 '직조공'이었다. 그는 스토아와 로마의 윤리적 관점을 하나로 엮었다. 한 손으로는 로마 엘리트에게 철학적 숙고를 소개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들이 멀리 떨어진 자기 고향의 이익을 지키고 돌보도록 은근히 이끌었다. 스토아는 로마에 더없이 좋은 자리에 있는

실용적인 사절을 둔 셈이었고, 시기도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없었다. 초기 스토아에게서는 지역주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제논은 자신이 돈을 대 복원한 건물에 자기 이름과 함께 고향을 새겨 달라고 고집했고, 클레안테스의 검소한 생활에는 여행할 여유도,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었다. 디오게네스조차 로마에 다녀온 뒤 서둘러 아테네로 돌아왔다. 세계 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태도였다. 파나이티오스는 선배들과 달리 타고난 세계인이었다. 로도스에서 시작된 삶은 페르가몬과 로마 유학으로 넓어졌고, 그는 지중해 대부분을 여행하며 동방에 매료된 로마인들과 어울렸다. 이 다양하고 서로 부딪치는 인연을 놀랄 만큼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통합했다. 훗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에서 자신을 '세계 시민'이라 부른 것도 파나이티오스가 처음 낸 새 길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다. 아테네가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자 "분별 있는 사람에게는 도시 하나면 충분하다"며 정중히 사양했다.

어법

- **Where Zeno was a founding genius and Chrysippus was the cleaver to the Academy's knots, while Aristo favored ~ and Antipater moved ~, Panaetius was a kind of weaver** : where · while = '~인 반면'(대조). 긴 종속절 넷이 앞에 오고 주절(Panaetius was ~)은 맨 뒤에 온다.
- **tying Stoic and Roman ethical perspectives together, introducing ~ with one hand, subtly directing them to protect and service ~ with the other** : 분사구문 셋이 weaver의 내용을 풀어 준다. with one hand ~ with the other(대구). direct + O + to V.
- **The timing could not have been more essential.** : 부정어 + could have been + 비교급 = 더할 나위 없이 ~했다(최상의 의미).
- **Zeno insisted on his hometown being inscribed next to his name on a building he had paid to restore** : insist on + 의미상 주어(his hometown) + being p.p.(고향 이름이 '새겨지는' 쪽). a building (that) he had paid to restor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대과거.
- **Cleanthes's frugal lifestyle had little room for travel, let alone concern for international affairs** : let alone = ~은 말할 것도 없고(부정적 의미의 문장 뒤에 쓴다). little room = 거의 없는 여지(부정).
- **These were not attitudes well fitted to a global empire.** : 과거분사구 well fitted to가 attitudes를 뒤에서 꾸민다(= attitudes that were well fitted to).
- **Marcus Aurelius would, in Meditations, describe himself as a "citizen of the world," and in so doing was following the new course for the philosophy that Panaetius had first set** : describe A as B. in so doing = 그렇게 함으로써. had set = 대과거(마르쿠스보다 앞서 파나이티오스가 낸 길).
- **When Athens offered him citizenship, he politely declined, saying that "one city was enough for a sensible man."** : offer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4형식). saying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bsolutism	절대주의	rigidity	pragmatism
pragmatic	실용적인	practical	idealistic
subtly	은근히	quietly	openly
supremely	더없이	extremely	—
essential	꼭 필요한, 중요한	crucial	unimportant
provincialism	지역주의, 편협함	parochialism	cosmopolitanism
inscribe	새기다	engrave, carve	erase
frugal	검소한	thrifty	extravagant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et alone	~은커녕	not to mention	—
globalist	세계주의자	cosmopolitan	nationalist
integrate	통합하다	combine, unify	separate
conflicting	서로 부딪치는	clashing	compatible
decline	사양하다	turn down	accept
sensible	분별 있는	reasonable	foolish

내용 일치 제논 = 창시의 천재 · 크리시포스 = 아카데미의 매듭을 자르는 사람 · 아리스토 = 실용적 지침보다 절대주의 · 안티파트로스 = 일상의 규칙 · 파나이티오스 = 직조공 / 지역주의의 예 = 제논(고향 이름) · 클레안테스(여행 없음) · 디오게네스(서둘러 귀환) / 유학지 = 페르가몬 · 로마 / 아테네 시민권 = 사양. **밑줄 의미** a kind of weaver = 스토아와 로마, 철학과 정치, 로마와 고향을 하나로 엮는 사람 / one city was enough for a sensible man = 세계를 품되 소속과 충성은 고향 하나로 족하다.

> **한 줄 요약** 선배들의 지역주의와 달리 파나이티오스는 스토아와 로마, 세계와 고향을 엮은 타고난 세계인이었지만 아테네 시민권은 사양했다.

8-4 동방 사절단과 걸어야 했던 왕 64쪽 ¶3 ~ 65쪽 ¶1

원문 위치 원서 64쪽 ¶3 ~ 65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3 첫 문장	balancing out his ambition with mildness	분사구문 + balance out A with B
●	64쪽 ¶3 첫 문장	moderating	반전 후보 → inflaming
◆	64쪽 ¶3 둘째 문장	no wet blanket	밑줄 의미: 흥을 깨는 사람이 아님
▲	64쪽 ¶3 둘째 문장	or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or = 그렇지 않았다면 + would have p.p.
▲	64쪽 ¶3 셋째 문장	got enough out of … that … he asked him to accompany him	enough ~ that(결과) + ask O to V
★	64쪽 ¶3 셋째 문장	in the spring of 140 BC	연도 — 서답형 후보
★	64쪽 ¶3 넷째 문장	Egypt, Cyprus, Syria, Rhodes	경유지 — 내용 일치 후보
◆	64쪽 ¶3 마지막 문장	a "fact-finding mission"	밑줄 의미: 실태 조사 사절단
▲	64쪽 ¶4	just as we are still struggling to strike	just as = ~와 꼭 마찬가지로
▲	64쪽 ¶5 첫 문장	In the way that Zeno followed …, so too did Panaetius … continue	so + 조동사 + 주어 도치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4쪽 ¶5 첫 문장	continue the family business	밑줄 의미: 외교라는 집안일을 잇다
▲	64쪽 ¶5 셋째 문장	it was likely on his advice ... that Scipio banned them	강조구문 + 추측의 likely
●	64쪽 ¶5 셋째 문장	banned	반전 후보 → welcomed
▲	64쪽 ¶6	in such a frenzy that they yelled for Scipio to take	such ~ that + for 의미상 주어 + to V
▲	65쪽 첫 줄	could hardly keep up with	hardly = 거의 ~ 못하다
◆	65쪽 첫 줄	they have seen their king walk	밑줄 의미: 게으른 왕에 대한 풍자

내용

모두가 알았듯 파나이티오스는 열정이 넘치면서도 실용적인 스키피오를 누그러뜨려, 그의 야망을 온화함과 원칙으로 균형 잡았다. 그렇다고 흥을 깨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토록 활기차고 다양한 교우 관계를 가꿀 수 없었을 것이다. 스키피오는 그와 함께하는 것을 무척 좋아해, 기원전 140년 봄 동방으로 가는 야심 찬 사절단에 동행해 달라고 청했다. 여러 기록에 남은 이 사절단은 이집트 · 키프로스 · 시리아 · 로도스, 그리고 그리스와 소아시아 여러 곳을 들렀다. 플루타르코스는 스키피오가 파나이티오스를 직접 불렀다고 쓰고, 다른 기록은 원로원이 "사람들의 폭력과 무법을 살피러" 그들을 보냈다고 전한다. 오늘날로 치면 '실태 조사 사절단'이다. 2,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의회는 같은 지역에 사람을 보내 같은 관찰을 시키고, 우리는 여전히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다수의 관심사와 자신의 관심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쓴다. 제논이 아버지의 생업을 이었듯, 외교관의 아들이자 두 철학자 외교관의 제자인 파나이티오스도 가업을 이어 스토아를 강당에서 권력의 지렛대로, 아테네 아고라의 지역주의에서 세계 무대로 옮겼다. 신들이 인간사에 적극 개입한다고 믿던 시대에 그는 자유사상가였다. 점술가와 점성술사의 어리석은 이론을 거부했고, 스키피오가 이 무렵 그들을 군대에서 몰아낸 것도 아마 그의 조언 때문이었을 것이다. 거의 2년에 걸친 이 사절단에서 플루타르코스가 전하는 일화가 있다. 파나이티오스와 하인 다섯을 거느리고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한 스키피오에게 군중은 얼굴을 보게 머리에서 토가를 벗으라고 외쳤고, 그가 그렇게 하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게으르고 몸을 떠받든 탓에 일행의 걸음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집트 왕 '뚱보' 프톨레마이오스 8세를 보며 스키피오는 파나이티오스에게 속삭였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은 벌써 우리 방문의 덕을 보았소. 우리 덕분에 왕이 걷는 모습을 보았으니." 뚱뚱하고 게으른 국가 원수는 역사에 되풀이해 등장하는 인물이다.

어법

- **Panaetius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frenetic yet practical Scipio, balancing out his ambition with mildness and principles** : have an effect on. frenetic yet practical = 형용사 둘을 yet(그러나)으로 연결. balancing = 분사구문(결과·부연).
- **But he was clearly no wet blanket, or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cultivate such a vivacious and diverse social circle** : or = otherwise(그렇지 않았다면) + 가정법 과거완료의 귀결절. such + a + 형용사 + 명사.
- **Scipio got enough out of Panaetius's company that in the spring of 140 BC he asked him to accompany him** : get A out of B = B에서 A를 얻다. enough ~ that = ~할 만큼 충분히(결과). ask + O + to V. accompany는 타동사(accompany with는 오답).
- **another source explains that the Senate sent them to "to view the violence and lawlessness of men."** : 원문에는 to가 두 번 인쇄되어 있다(인용 부호 앞뒤). 바른 형태는 send + O + to V(목적) 하나뿐이다.
- **just as we are still struggling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s Panaetius did, between nationalism and globalism** : just as = ~와 꼭 마찬가지로. as Panaetius did의 did = 대동사(struck the balance). strike a balance between A and B.

- **In the way that Zeno followed in his father's trade, so too did Panaetius, ~, continue the family business** : so + 조동사 + 주어 + 동사원형 도치 = 파나이티오스도 그렇게(가업을 이었다). In the way that = ~한 방식대로.
- **it was likely on his advice around this time that Scipio banned them from his regiments** : It was ~ that 강조구문(부사구 on his advice 강조). likely = 아마(추측 —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 ban A from B.
- **the people were in such a frenzy that they yelled for Scipio to take his toga off his head so they could get a good look** : such + 명사 + that(결과). yell for + 의미상 주어 + to V. so (that) + S + could = 목적.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oderate (v.)	누그러뜨리다, 절제시키다	calm, temper	intensify
frenetic	열광적인, 정신없는	frantic	calm
wet blanket	흥을 깨는 사람	killjoy	—
vivacious	활기찬	lively	dull
embassy	사절단	mission	—
summon	부르다, 소환하다	call for	dismiss
lawlessness	무법	disorder	order
dispatch	파견하다	send	recall
placate	달래다	appease	provoke
freethinker	자유사상가	skeptic	believer
soothsayer	점쟁이	fortune-teller	—
frenzy	광란, 열광	excitement	calm
retinue	수행원 무리	entourage	—
pamper	애지중지하다	indulge, spoil	neglect

내용 일치 사절단 = 기원전 140년 봄 · 스키피오의 요청(플루타르코스: 직접 불렀다) · 다른 기록: 원로원이 보냄 · 경유지 = 이집트 · 키프로스 · 시리아 · 로도스 · 그리스와 소아시아 · 거의 2년 · 점술가 · 점성술사 추방은 '아마(likely)' 그의 조언 · 수행원 = 파나이티오스 + 하인 다섯 · 왕 = '뚱보' 프톨레마이오스 8세. **지칭** 64쪽 ¶3 he asked him to accompany him = Scipio가 Panaetius에게 자신(Scipio)과 동행을 청함 / ¶5 the student of two philosopher diplomats = 크라테스 · 디오게네스의 제자로 읽힘 / banned them의 them = soothsayers and astrologers / 65쪽 첫 줄 our visit의 our = Scipio 일행.

> **한 줄 요약** 스키피오의 야망을 누그러뜨린 파나이티오스는 기원전 140년 동방 사절단에 동행하며 스토아를 세계 무대로 옮겼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왕이 걷는 모습'이라는 농담을 들었다.

8-5 의무를 다룬 책, 맞선 두 스토아 65쪽 ¶2~¶4

원문 위치 원서 65쪽 ¶2~¶4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첫·둘째 문장	In 138 BC … forty-seven years old	연도 · 나이 — 서답형 후보
▲	¶2 셋째 문장	His schooling long finished …, an interim public career … behind him	주어가 남은 분사구문(being 생략)
◆	¶2 셋째 문장	ensconced in the inner workings of Rome	밑줄 의미: 로마 권력의 한가운데
▲	¶2 넷째 문장	It was … timeless and modern that he would … begin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	¶3 첫 문장	His most important book, …, which is …, was not merely theoretical	삽입 동격 · 관계절 + 본동사 was
★	¶3 첫 문장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	서명 — 내용 일치 후보
▲	¶3 둘째 문장	Scipio, who still depended on …, began prosecuting	depend on A for B / begin -ing
★	¶3 넷째 문장	the Gracchus affair … Tiberius Gracchus	7장 연결(블로시우스)
▲	¶3 다섯째 문장	which sought to distribute lands to the poor	계속적 which + the + 형용사
●	¶3 다섯째 문장	on the other side of it	반전 후보 → on the same side
▲	¶3 여섯째 문장	is interesting in that it essentially pitted	in that = ~라는 점에서
◆	¶3 일곱째 문장	the Stoic revolutionary … the Stoic conservative	지칭: Blossius / Panaetius
▲	¶3 여덟째 문장	not so much a strange coincidence … as rather	not so much A as B
◆	¶3 마지막 문장	that's what happens when you're connected	밑줄 의미: 연결된 사람은 갈등의 한가운데 선다
▲	¶4 둘째 문장	saw each human being as having a unique prosopon … that must be fulfilled	see A as -ing + 관계절
▲	¶4 둘째 문장	however humble or impressive	however + 형용사(양보)

내용

기원전 138년 파나이티오스와 스키피오는 로마로 돌아왔다. 마흔일곱의 파나이티오스는 폭넓은 삶의 경험을 쌓은 뒤였다. 페르가몬과 아테네에서의 공부는 오래전에 끝났고, 해군 복무를 포함한 로도스에서의 공직 생활도 지나간 일이었다. 이제 그는 로마 권력의 안쪽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 나이의 많은 남자들이 그러하듯 그가 글쓰기로 관심을 돌린 것은 시대를 초월한 일이자 현대적인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책 『적절한 행위에 관하여(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는 공적 삶의 윤리적 행동을 깊이 성찰한 책으로,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가 책을 마무리할 즈음, 여전히 그의 조언과 지도에 기대던 스키피오는 로마 정치인들을 상대로 대형 부패 사건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루키우스 코타의 갈취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라쿠스 사건과 스키피오의 처남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에 얽힌 것이었다. 가난한 이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 한 이 민중 반란은 부분적으로 안티파트로스의 윤리 가르침에 고무되었고(그의 제자 블로시우스가 주동자였다), 파나이티오스는 그 반대편에 섰다.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지배층의 역할이었다. 스키피오의 공격적인 기소는 사실상 두 스토아 지도자를 맞세웠다. 혁명가 블로시우스와 보수주의자 파나이티오스, 둘 다 국가에 대한 의무라고 믿은 것을 다하고 있었다. 이는 역사의 이상한 우연이라기보다 스토아가 정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며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모든 당사자를 아는 격렬한 갈등의 한가운데 서는 것, 연결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긴다. 키케로는 이 책이 "우리가 가진 도덕적 의무에 관한 논의 가운데 단연 가장 철저한 것"이라고 썼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정치 혁명을 헤쳐 나가야 했던 키케로의 말이니 가벼운 평가가 아니다. 앞선 스토아들은 때로 사회 관습을 대놓고 무시했지만, 파나이티오스는 모든 사람이 비천하든 대단하든 명예와 용기와 헌신으로 다해야 할 고유한 프로소폰(prosopon, 그리스어로 '성격' 또는 '배역')을 지닌다고 보았다.

어법

- **His schooling long finished in Pergamum and Athens, an interim public career in Rhodes behind him, including time spent in the navy, he now found himself ensconced in the inner workings of Rome** : 주어가 남은 분사구문 둘(His schooling (being) long finished / an interim public career (being) behind him). 주절 주어 he와 달라서 의미상 주어를 남겼다. find oneself + p.p. = 어느새 ~한 상태에 있다.
- **It was again timeless and modern that he would, as so many men do at that age, begin to turn some of his attention to writing**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삽입절 as so many men do의 do = 대동사(turn their attention to writing).
- **His most important book,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 which is an extended meditation on ethical behavior in public life, was not merely theoretical** : 주어 + 동격(서명) + 삽입 관계절 → 본동사 was. not merely = 단지 ~만은 아닌.
- **Scipio, who still depended on Panaetius for advice and guidance, began prosecuting a series of major corruption cases** : depend on A for B = B를 A에게 의지하다. begin -ing(begin to V도 가능). a series of + 복수명사.
- **Antipater's ethical teachings partly encouraged this populist revolt (~), which sought to distribute lands to the poor** : 콤마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is populist revolt). the poor = the + 형용사 = 가난한 사람들.
- **Scipio's aggressive prosecution of the Gracchus affair is interesting in that it essentially pitted two Stoic leaders against each other** : in that + S + V = ~라는 점에서. pit A against B = A를 B와 맞붙이다. it = Scipio's prosecution.
- **It's not so much a strange coincidence of history as rather a natural outgrowth of Stoicism's increasing integration into the political world** : not so much A as B = A라기보다는 B. 원문은 as 뒤에 rather를 덧붙여 B 쪽을 한 번 더 강조했다.

- **Panaetius saw each human being as having a unique prosopon, ~, that must be fulfilled with honor and courage and commitment, however humble or impressive** : see A as B(as + 동명사 having). that = prosopon을 받는 주격 관계대명사. however + 형용사 = 아무리 ~하더라도(뒤의 it may be가 생략됨).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terim	중간의, 임시의	temporary	permanent
ensconce	자리 잡게 하다	settle, establish	dislodge
meditation	성찰, 숙고	reflection	—
theoretical	이론적인	abstract	practical
prosecute	기소하다	charge	defend
extortion	갈취	blackmail	—
populist	민중의	grassroots	elitist
ringleader	주동자	instigator	follower
pit A against B	A를 B와 맞붙이다	set against	reconcile
revolutionary	혁명가	radical	conservative
outgrowth	자연스러운 결과	consequence	—
thorough	철저한	comprehensive	superficial
flout	대놓고 무시하다	defy	observe
convention	관습	custom	—

내용 일치 귀환 = 기원전 138년 · 47세 · 책 =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공적 삶의 윤리) · 부패 사건 = 루키우스 코타(갈취) · 그라쿠스 사건(처남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 반란을 고무 = 안티파트로스의 가르침, 주동자 = 그의 제자 블로시우스 · 파나이티오스 = 반대편(지배층의 질서). **지칭** ¶3 finishing it의 it =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 / this populist revolt = the Gracchus affair / his student의 his = Antipater / the other side of it의 it = 그 반란 / in that it의 it = Scipio's prosecution.

> **한 줄 요약** 로마로 돌아와 의무에 관한 책을 쓰던 파나이티오스는 그라쿠스 사건에서 동료 스토아 블로시우스와 맞섰고, 모든 사람에게는 명예롭게 다해야 할 고유한 배역(prosopon)이 있다고 보았다.

8-6 네 겹의 역할과 타고난 자원 65쪽 ¶5 ~ 66쪽 ¶7

원문 위치 원서 65쪽 ¶5 ~ 66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5	if we are to live ... we must find	be to V = 의도(~하려면)
★	65쪽 인용 1	common to us all as human beings	목록 1 — 빈칸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5쪽 인용 2	unique to our individual daimon	목록 2 — 개인의 소명
★	66쪽 인용(목록 3)	assigned to us by the chance of our social station	목록 3 — 과거분사 후치 수식
▲	66쪽 인용(목록 4)	that arise from decisions and commitments we have made	주격 관계대명사 + 목적격 생략
▲	66쪽 ¶1 첫 문장	an essential part of living virtuously	전치사 + 동명사 + 부사
◆	66쪽 ¶1 셋째 문장	The pieces of the equation	밑줄 의미: 사람마다 맞춰야 할 역할들
▲	66쪽 ¶1 셋째 문장	the complicated balance—and the need for guidance—is	삽입구는 수 일치에 영향 없음
◆	66쪽 ¶2 첫 문장	some kind of master networker	밑줄 의미: 인맥의 달인(그 이상이었다)
▲	66쪽 ¶2 둘째 문장	More than just searching ..., he was connecting	more than + 동명사
★	66쪽 ¶2 둘째 문장	connecting timeless principles with real people	빈칸 · 요지 1순위
▲	66쪽 ¶4 첫 문장	believed that ... and that we are obligated to	that절 병렬 + be obligated to V
●	66쪽 ¶4 둘째 문장	with equal courage	반전 후보 → with less courage
▲	66쪽 ¶6 첫 문장	it was aphormai ... that Panaetius pointed them to	강조구문(전치사의 목적어 강조)
★	66쪽 ¶6 첫 문장	aphormai (our inborn resources)	서답형 · 빈칸 후보
▲	66쪽 ¶6 넷째 문장	while born to privilege, chose not to settle	while + 과거분사 / not to V

내용

파나이티오스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적절한 행위를 고르려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1) 인간으로서 모두에게 공통된 역할과 의무, (2) 각자의 다이몬, 곧 개인의 재능 · 소명에 고유한 역할과 의무, (3) 사회적 지위(가족과 직업)라는 우연이 맡긴 역할과 의무, (4) 스스로 내린 결정과 약속에서 생긴 역할과 의무다. 이 층 하나하나가 현실 세계에서 덕 있게 사는 데 꼭 필요하다. 군인은 인간으로서, 전사로서, 가족의 일원(또는 이민자나 부유한 상속자)으로서, 친구 · 가족 · 사업 동료에게 약속한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국가 원수와 거지는 방정식의 조각이 다르지만, 복잡한 균형과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다. 그러니 파나이티오스가 '잇는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가 인맥의 달인이었다는 뜻만이 아니다(그는 실제로 인맥의 달인이었다). 책 속의 난해한 생각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한 원리를 실제 사람들의 실제 삶에 이어 주었다는 뜻이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 고대인도 이 질문과 씨름했고, 파나이티오스의 공식은 그들을 도왔듯 우리도 도울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려는 타고난 욕구가 있고, 우리는 그 잠재력을 각자의 방식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모두가 전장의 스키피오나 엘리트 교육과 외교 인맥을 갖춘 파나이티오스가 될 수는 없지만, 다른 많은 방식으로 같은 용기를 내어 공공선에 봉사할 수 있다. 스키피오 서클이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 재능도 지위도 관심도 크게 다른 사람들이 저마다 기여하고 번영할 길을 찾았다. 저자는 친구들이 그 방법을 물으러

찾아간 사람이 파나이티오스였으리라 상상하며, 그가 가리킨 것이 아포르마이(aphormai), 곧 타고난 자원이었다고 말한다. 이 주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까지 이어진다. 자연은 인간에게 덕을 향한 본능을 주었고, 우리가 자신의 본성과 의무에 맞게 살며 받은 자원을 최대한 살릴 때 번영하고 고귀하게 살 수 있다. 특권층으로 태어난 파나이티오스는 안락한 삶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무대의 의무와 책임을 받아들였으며, 받은 자원을 지렛대 삼아 최고의 자신이 되어 시대의 큰일에 힘껏 기여했다. 그는 우리 각자도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

어법

- **Panaetius argues that if we are to live an ethical life and choose appropriate actions, we must find a way to balance** : if + be to V = ~하려면(의도). live와 choose는 are to에 함께 걸린다. a way to balance = 형용사적 to부정사.
- **the roles and duties assigned to us by the chance of our social station** : assign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맡겨진). by = 행위의 주체(사회적 지위라는 우연).
- **the roles and duties that arise from decisions and commitments we have made**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복수 선행사 → arise). commitments (that) we have mad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the complicated balance—and the need for guidance—is the same** : 대시 사이의 덧붙인 말은 주어의 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어 balance(단수) → is.
- **we don't just mean that he connected people like some kind of master networker—though he was one** : not just = ~만이 아니다. one = a master networker(부정대명사). though he was one = 실제로 그렇기도 했지만.
- **Panaetius believed that each person had an inborn desire for leadership, and that we are obligated to fulfill this potential in our own unique way** : believed의 목적어 that절 두 개가 병렬. 첫 절은 시제 일치(had), 둘째 절은 지금도 해당하는 내용이라 현재(are). be obligated to V = ~할 의무가 있다.
- **it was aphormai (our inborn resources) that Panaetius pointed them to** : It was ~ that 강조구문. point A to B의 B(aphormai)를 강조해 앞으로 빼서 전치사 to가 문장 끝에 남았다.
- **Panaetius, while born to privilege, chose not to settle into that comfortable life of ease** : while (he was) born to privilege = 양보(~이었지만). choose not to V(to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to 앞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ppropriate	적절한	suitable	inappropriate
station	사회적 지위, 신분	status, position	—
commitment	약속, 헌신	pledge	—
virtuously	덕 있게	morally	wickedly
heir	상속자	inheritor	—
obscure (a.)	난해한, 잘 알려지지 않은	arcane	well-known
timeless	시대를 초월한	eternal	dated
inborn	타고난	innate	acquired
obligated	의무가 있는	bound	free
thrive	번영하다	flourish	decline
consistently with	~에 맞게, 일관되게	in line with	—
privilege	특권	advantage	disadvantag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embrace	받아들이다	accept	reject
leverage (v.)	지렛대로 삼다, 최대한 활용하다	exploit, use	waste

내용 일치 네 가지 역할 = 인간 공통 / 개인의 다이몬(재능 · 소명) / 사회적 지위의 우연(가족 · 직업) / 스스로 한 결정과 약속 · 군인의 예 · 국가 원수와 거지도 균형과 지침의 필요는 같음 · 아포르마이 = 타고난 자원(친구들이 그를 찾았다는 것은 저자의 상상, we can imagine). **밑줄 의미** a connector = 사람을 잇는 인맥가이면서,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한 원리를 실제 사람의 실제 삶에 잇는 사람 / The pieces of the equation =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진 역할들.

> **한 줄 요약** 파나이티오스는 네 겹의 역할을 균형 있게 다루는 공식으로 원리를 실제 삶에 이었고, 누구나 타고난 자원(aphormai)으로 자기 방식대로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8-7 판크라티스트와 미완성의 걸작 66쪽 ¶8 ~ 67쪽 ¶3

원문 위치 원서 66쪽 ¶8 ~ 67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6쪽 ¶8 첫 문장	the all-or-nothing race of a runner like Chrysippus	밑줄 의미: 4장 크리시포스의 달리기
▲	66쪽 ¶8 첫 문장	a runner … trying not to shove his way to victory	현재분사 후치 수식 + not to V
★	66쪽 ¶8 둘째 문장	the pankratist	서답형 · 빈칸 1순위
▲	67쪽 첫 줄	one of the most powerful and illustrative sports metaphors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명사
▲	67쪽 인용	The life of men … who pass … and who wish … is exposed	긴 주어 + 단수 동사 is
▲	67쪽 인용	such as the athletes have who are called	유사관계대명사 such as + 관계절 분리
▲	67쪽 인용	when called to the contest	접속사 + 과거분사
◆	67쪽 인용	opposing their hands as a rampart	밑줄 의미: 손을 성벽처럼 세움
▲	67쪽 인용	ought to be alert, ready, strongly protected	ought to + 형용사 · 분사 병렬
▲	67쪽 인용	lest in any way a hostile … onslaught be made	lest + (should) 동사원형
▲	67쪽 ¶2 첫 문장	would appear, uncredited, in the works of	삽입 과거분사(출처 표시 없이)
●	67쪽 ¶2 둘째 문장	less theoretical and much more violent	반전 후보(비교의 방향)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2 넷째 문장	prepared for the blows that will inevitably fall	빈칸 · 요지 1순위
●	67쪽 ¶3 첫 문장	would not finish the book, for reasons unknown	반전 후보 → finished
▲	67쪽 ¶3 셋째 문장	As no painter had been found ..., so no one ... would venture	As A, so B = A처럼 B도
◆	67쪽 ¶3 셋째 문장	the Venus of Cos which Apelles had left unfinished	밑줄 의미: 손댈 수 없는 미완성 걸작

내용

밀치지 않고 승리하려 애쓰는 크리시포스 같은 달리기 선수의,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경주와 달리, 파나이티오스는 사회적 의무를 가장 잘 다하는 법을 생각하며 다른 종류의 운동선수를 모델로 삼았다. 바로 판크라티온(그리스식 권투)을 하는 판크라티스트다. 그는 판크라티스트야말로 덕 있는 삶의 긴장과 본질을 담아내는 최고의 모델이라 여겼고, 이 비유는 스토아뿐 아니라 철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생한 스포츠 비유 가운데 하나다. 아울루스 겔리우스가 전하는 『의무론(On Duties)』 제2권의 내용은 이렇다. 세상일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과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의 삶은 거의 매일 끊이지 않는 고난과 갑작스러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막고 피하려면 판크라티스트 같은, 늘 준비되고 깨어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들은 경기에 불려 나가면 팔을 들어 뻗고 손을 성벽처럼 세워 머리와 얼굴을 지키며, 싸움이 시작되기 전부터 온몸이 피하거나 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현자의 정신도 언제 어디서나 폭력과 부당한 해악을 경계하며, 판단과 앞을 내다보는 생각을 팔과 손처럼 운명의 타격과 악인의 덫에 맞세워야 한다. 준비 없이 무방비한 때에 적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 비유는 출처 표시 없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에픽테토스의 글에 다시 나타난다. 안티파트로스의 궁수나 아리스토의 창던지기 선수와 달리 파나이티오스는 삶을 덜 이론적이고 훨씬 더 격렬하고 힘이 드는 것으로 보았다. 삶은 자신과의 시합만이 아니라 상대와 운명을 상대로 한 실제 싸움이며, 우리는 반드시 닥칠 타격에 대비해야 한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이 끝내 이 책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남은 글만으로도 당대에 놀라운 성취로 인정받았다. 기원전 134년 누만티아 전쟁에서 스키피오를 섬기고 군사 훈련 · 조세 · 파산 개혁에 관여한 제자 푸블리우스 루틸리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펠레스가 미완으로 남긴 코스의 비너스를 어떤 화가도 완성하지 못했듯(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나머지를 제대로 그려 낼 엄두를 낼 수 없었으므로), 파나이티오스가 완성한 부분이 너무 뛰어나 누구도 남은 부분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법

- **Unlike the all-or-nothing race of a runner like Chrysippus trying not to shove his way to victory, Panaetius took the model of a different kind of athlete when reflecting on how best to fulfill our social duties** : trying = a runner를 꾸미는 현재분사(not to V = to부정사의 부정). when reflecting = 접속사 + 분사. how best to V = 의문사 + to부정사.
- **"The life of men," he says, "who pass their time in the midst of affairs, and who wish to be helpful to themselves and to others, is exposed to constant and almost daily troubles and sudden dangers."** : 주어 The life(단수)와 동사 is 사이에 삽입절(he says)과 men을 꾸미는 who절 두 개가 끼어 있다. be exposed to = ~에 노출되다.
- **one needs a mind that is always ready and alert, such as the athletes have who are called 'pancratists.'** : such as = 유사관계대명사(have의 목적어 역할 = a mind). who are called ~는 the athletes를 꾸미는 관계절이 동사 have 뒤로 밀려난 것.

- **For just as they, when called to the contest, stand with their arms raised and stretched out** : just as ~, so ~ 상관 구문(뒤의 so the spirit and mind of the wise man ~ ought to be). when (they are) called. with + O + p.p.(팔이 '들린' 상태).
- **lest in any way a hostile and sudden onslaught be made upon us when we are unprepared and unprotected** : lest + S + (should) 동사원형 = ~하지 않도록. lest에 이미 부정의 뜻이 있으므로 not을 또 쓰면 오답.
- **It's a metaphor of Panaetius's creation that would appear, uncredited, in the works of Marcus Aurelius and Epictetus**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a metaphor). uncredited = 삽입된 과거분사(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Ultimately, Panaetius would not finish the book, for reasons unknown.** : would not = 결국 ~하지 못하게 된다(과거에서 본 미래). reasons unknown = 형용사 후치(이유를 알 수 없는).
- **"As no painter had been found to complete that part of the Venus of Cos which Apelles had left unfinished ~," he said, "so no one ~ would venture to supply what he had left undone."** : As A, so B = A인 것처럼 B도. which = 목적격 관계대명사(선행사 that part).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supply의 목적어). leave + O + p.p.(unfinished · undon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hove	밀치다	push	—
illustrative	잘 보여 주는	explanatory	—
alert	깨어 있는, 경계하는	watchful	inattentive
rampart	성벽, 방어벽	bulwark	—
wanton	까닭 없는, 악의적인	malicious	justified
flag (v.)	약해지다, 시들다	weaken	strengthen
forethought	앞을 내다보는 생각	foresight	impulsiveness
snare	덫	trap	—
onslaught	맹공	assault	retreat
uncredited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unacknowledged	credited
inevitably	피할 수 없이	unavoidably	—
tower over	~보다 훨씬 뛰어나다	surpass	fall short of
surpassing	빼어난	superb	inferior
venture to V	감히 ~하다	dare	hesitate

내용 일치 판크라티온 = 그리스식 권투 · 기록자 = 아울루스 겔리우스(『On Duties』 제2권) · 비유를 출처 없이 쓴 사람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 에픽테토스 · 대비 = 크리시포스의 달리기 · 안티파트로스의 궁수 · 아리스토의 창던지기 · 책은 미완(이유 모름) · 루틸리우스 = 기원전 134년 누만티아 전쟁 · 코스의 비너스 = 아펠레스. **밑줄 의미** the blows (of fortune) = 삶에서 반드시 닥치는 시련 / the Venus of Cos = 너무 뛰어나 아무도 손대지 못한 미완성 걸작.

> **한 줄 요약** 파나이티오스는 삶을 늘 깨어 대비해야 하는 판크라티스트의 싸움으로 보았고, 미완으로 남은 그의 책은 누구도 감히 채우지 못할 걸작으로 인정받았다.

8-8 덕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것은 끝난다 67쪽 ¶4 ~ 68쪽 ¶7

원문 위치 원서 67쪽 ¶4 ~ 68쪽 ¶7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7쪽 ¶4 첫 문장	For all that he left unsaid	for all = ~에도 불구하고
★	67쪽 ¶4 첫 문장	for the next three hundred years	숫자 — 300년
▲	67쪽 ¶4 둘째 문장	it was possible for a good lawyer to defend	가주어 + for 의미상 주어 + to V
▲	68쪽 첫 줄	provided they were not egregiously depraved	provided (that) = ~라면
▲	68쪽 첫 줄	Not only is it a position that …, but it is also	Not only + 도치
◆	68쪽 첫 줄	a pillar of the legal system	밑줄 의미: 변호 제도의 기둥
▲	68쪽 ¶1 첫 문장	helped rid the philosophy of arcane terminology	help + 원형 + rid A of B
●	68쪽 ¶1 둘째 문장	more practical and accessible	반전 후보 → abstract
●	68쪽 ¶1 인용	In doctrine he was mellower, and in style more lucid	반전 후보 → harsher · obscure
▲	68쪽 ¶2 첫 문장	less a philosopher and more like a great man	less A and more B
★	68쪽 ¶2 셋째 문장	virtue was not self-sufficient	요지 · 서답형 1순위
▲	68쪽 ¶3 둘째 문장	It is in the balance … that the good life is found	강조구문(부사구)
★	68쪽 ¶4 첫 문장	In 129 BC, Scipio would die	연도
▲	68쪽 ¶4 다섯째 문장	he would have had to reassure himself	would have p.p. = 추측
▲	68쪽 ¶6 첫 문장	all that was left was for him to write	all that + for 의미상 주어 + to V 보어
★	68쪽 ¶6 셋째 문장 · ¶7	another twenty years … in 109 BC	숫자 · 연도

내용

말하지 못하고 남긴 것이 많았지만, 그가 말하고 세운 것은 스토아가 이후 300년 동안 로마 정치에서 번성하게 했다. 키케로에 따르면 파나이티오스는 좋은 변호사가 유죄인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이 지독하게 타락하거나 사악하지 않다면 말이다. 각자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그의 깊은 믿음에 맞는 생각이자, 지난 2,000년 동안 법체계의 기둥이 된 실천적 혁신이다. 아무도 달갑지 않은 의뢰인을 변호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확신하겠는가. 파나이티오스는 말과 글이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철학에서 난해한 용어와 매력 없는 문체를 덜어 냈다.

저자는 이것이 틀림없이 스토아 스승들의 초기 영향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그는 철학 자체를 더 실용적이고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다. 키케로는 그가 교리의 가혹함과 논리의 까다로움을 함께 비판하며 스토아의 거칠고 불쾌한 전개를 피하려 했다고, "교리는 더 부드럽고 문체는 더 명료했다"고 썼다. 그는 철학자라기보다 위대한 인물 같아 보이는 최초의 스토아 가운데 하나였다. 제논 같은 스토아는 덕만으로 행복에 충분하다고 했다. 단순하고 맞는 말이지만 지침으로는 빈약하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파나이티오스는 덕이 자족적이지 않다고, 힘과 건강과 물질적 자원도 필요하다고 믿은 최초의 스토아였다. 철학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다른 중요한 것들과 얽혀 있으며, 좋은 삶은 서로 다투는 의무 · 관심 · 재능을 통합하는 균형 속에서 발견되고 살아진다. 기원전 129년 스키피오가 세상을 떠났다. 저자는 파나이티오스가 슬퍼하면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친 훈련에 기댔으리라 상상한다. 아들이 죽었다고 하자. 그를 세상에 낳을 때 이미 그가 죽을 존재임을 알았다고 스스로 일깨워야 한다. 친구도, 경력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끝나고, 철학은 그 사실을 일깨우며 삶의 타격에 대비하게 한다. 스키피오가 죽은 뒤 파나이티오스는 삶의 한 장이 끝났음을 알았다. 같은 해 안티파트로스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 학파의 수장을 맡아 20년을 더 가르치고 썼다. 오늘날 은퇴한 정치인처럼 가끔 로마에 가 강연하고 행정관들에게 조언하거나 책을 알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도 기원전 109년 세상을 떠났다.

어법

- **For all that he left unsaid, so much was said and established that allowed Stoicism to thrive in Roman political life** : For all + 명사(구) = ~에도 불구하고. all that he left unsaid = 그가 말하지 않고 남긴 모든 것(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leave + O + p.p.). allow + O + to V. so much ~ that allowed의 that은 결과의 so ~ that이 아니라 주격 관계대명사(that 뒤에 주어가 없다).
- **Panaetius argued it was possible for a good lawyer to defend a guilty client—provided they were not egregiously depraved or wicked** : argued (that) 생략.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to V. provided (that) = ~라는 조건으로. they = 단수 client를 받는 성 중립 대명사.
- **Not only is it a position that makes sense ~, but it is also a practical innovation that has been a pillar of the legal system over the last two thousand years** : 부정어 Not only가 문장 앞에 와서 도치(is it). has been + over the last ~ = 현재완료(계속). 변형 → Not only it is는 오답.
- **Panaetius was a simple and direct writer as well as speaker who helped rid the philosophy of arcane terminology and its unappealing style** : A as well as B. help + (to) V. rid A of B = A에게서 B를 없애다.
- **Panaetius was the first Stoic to believe that virtue was not self-sufficient, "claiming that strength, health, and material resources are also needed."** : the first + 명사 + to V(형용사적 용법). claiming = 분사구문(부연). the first · the last · the only 뒤의 명사는 흔히 to V로 꾸민다(who절도 가능).
- **It is in the balance, the integrating of competing obligations and interests and talents that the good life is found and lived** : It is ~ that 강조구문(부사구 in the balance 강조, the integrating ~ = balance의 동격). is found and lived = 수동 병렬.
- **The same is true for friends, he would have had to reassure himself.** : would have p.p. = (아마) ~했을 것이다 — 저자의 추측. had to = ~해야 했다. 사실로 단정하지 말 것.
- **all that was left was for him to write the next (and possibly the final) one** : all that was left = 남은 것 전부(단수 취급 → was). for him to write = 의미상 주어 + 보어 to부정사. one = chapter.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unsaid	말하지 않은	unspoken	stated
egregiously	지독하게	outrageously	mildly
depraved	타락한	corrupt	virtuous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novation	혁신	novelty	tradition
pillar	기둥	mainstay	—
arcane	난해한	obscure	plain
accessible	다가가기 쉬운	approachable	inaccessible
uncouth	거친, 세련되지 못한	crude	refined
censure	비난하다	criticize	praise
mellow	부드러운, 원숙한	gentle	harsh
lucid	명료한	clear	obscure
self-sufficient	자족적인	independent	dependent
mortal	죽을 운명의	human, transient	immortal
in a silo	고립된 채	in isolation	interconnected

내용 일치 300년 = 로마 정치에서 스토아의 번성 · 변호사 = 유죄 의뢰인도 변호 가능(지독하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 2,000년 = 법 체계의 기둥 · 덕이 자족적이지 않다고 믿은 최초의 스토아(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힘 · 건강 · 물질적 자원 · 스키피오 사망 = 기원전 129년 · 같은 해 안티파트로스 사망 → 아테네의 수장 · 20년 · 사망 = 기원전 109년. **지칭** 68쪽 첫 줄 they = a guilty client / ¶4 he was mortal의 he = your son / ¶6 the next (and possibly the final) one = 삶의 다음 장(chapter) / There = Athens.

> **한 줄 요약** 파나이티오스는 철학을 쉽고 실용적으로 만들고 덕 밖의 자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며, 스키피오를 잃은 뒤 아테네의 수장으로 20년을 더 봉사하다 기원전 109년 세상을 떠났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8 PANAETIUS]

범위	Panaetius the Connector (원서 PDF 61~68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anaetius held that every person is born with a desire to lead and that each of us must develop this potential in a way of our own. Few of us can fight like Scipio in battle, and few enjoy an elite education or diplomatic ties like Panaetius's. Yet all of us can serve the common good in other ways, with just as much courage. Nature has given us aphormai, inborn resources that incline us toward virtue. We flourish when we live in tune with our nature and our duties and make full use of what we have received. Though born to privilege, Panaetius refused a life of easy comfort and took on the duties of a wider stage. Every one of us, he thought, owes the world that same effort.

① Only people with an elite education can truly serve society.
② Everyone should use his or her own inborn resources to serve the common good.
③ Those born to privilege deserve a life of easy comfort.
④ Leadership is a talent given only to a few great generals.
⑤ We must set aside our duties in order to follow our natur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During the nearly two-year mission to the East, Scipio reached Alexandria with a small retinue, among them Panaetius and five servants. According to Plutarch, the local crowds grew so excited that they shouted at Scipio to uncover his head and show his face, and when he did, they broke into applause. Their own ruler, Ptolemy VIII, nicknamed "the Fat," could barely keep pace with his guests, for years of idleness and self-indulgence had left him unfit. Scipio leaned toward Panaetius and murmured that their visit had already benefited the city: thanks to the visitors, the people of Alexandria had at last watched their king walk.

① How Ptolemy VIII Built the Great City of Alexandria
② Why the Romans Feared the Kings of Egypt
③ A Royal Walk: Scipio's Joke in Alexandria
④ Panaetius Lectures the Crowds of Alexandria
⑤ Five Servants Who Protected a Roman General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anaetius seemed less like a pure philosopher than like a great man of the world. Earlier Stoics such as Zeno had taught that virtue by itself was enough for happiness, a claim that is simple and true but offers little practical guidance. Panaetius took a different view. Diogenes Laërtius reports that no Stoic before him had denied that virtue could stand on its own; strength and health, along with material resources, were needed as well. For Panaetius, philosophy never existed in isolation. It was bound up with many other important things, and the good life was to be found in balance, in combining competing duties, interests, and talents into one whole.

① Virtue alone guarantees a happy life.
② Material wealth matters more than virtue.
③ Philosophy should stay separate from everyday concerns.
④ Health is the only true good.
⑤ A good life comes from balancing virtue with life's other needs and duties.

4. 밑줄 친 Learn. Apply. Learn. Apply.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Little is known about what Panaetius studied under Crates, but the training plainly prepared him to follow his father into public life, the path of service marked out by Diogenes and Antipater for later Stoics. In 155 BC he was named a sacrificial priest of Poseidon Hippios at Lindos, the first of many public posts he would hold. The work convinced him that he still needed more formal schooling, so he went to Athens to study with Diogenes and his protégé Antipater for about five years. Then he went straight back to the world of action and put his learning to use at the summit of Roman power. Learn. Apply. Learn. Apply. That, says the author, is the Stoic way.

①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study and real-world practice
② memorizing every doctrine before taking any action
③ giving up public life for the sake of pure study
④ teaching others only what one has read in books
⑤ changing teachers each time one takes a new job

5. 밑줄 친 a kind of weav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Each of the early Stoics brought something different. Zeno was the founding genius, and Chrysippus cut through the knots tied by the Academy. Aristo preferred rigid absolutes to practical guidance, while Antipater moved the other way, trying to set out rules for daily life. The author calls Panaetius a kind of weaver. He joined Stoic and Roman ideas about ethics into a single fabric. With one hand he brought philosophical reflection to Rome's elite; with the other he quietly guided those same leader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his faraway homeland. In effect, the Stoa had gained a practical, well-connected envoy in Rome, and it could not have come at a better time.

① a craftsman who made fine clothing for Roman nobles
② someone who bound different traditions and interests into one whole
③ a thinker who rejected Roman values altogether
④ a teacher who wrote new rules for everyday life
⑤ a diplomat who served Rome at the expense of his homelan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Diogenes's famous embassy brought Stoicism to Rome in 155 BC, but the philosophy may have reached the city thirteen years before. A Stoic from Pergamum, Crates of Mallus, had been sent there to defend his homeland during the Macedonian Wars. A fall left him with a broken leg, so he spent months recovering and giving talks to small groups of Romans. By chance, Panaetius's father was also visiting Rome on ① his own official errand during that time. Did ② he go to hear ③ his lectures? Did ④ he carry home copies of the talks, which were circulating in verse and in commentaries? Or did ⑤ he take his son along and send the boy to meet Crates in person? We cannot know, but young Panaetius soon became Crates's student in Pergamum.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Everyone knew that Panaetius calmed Scipio, a restless but practical man, tempering his ambition with gentleness and principle. Still, Panaetius was no killjoy; otherwise he could never have gathered such a lively and varied group of friends. Scipio valued his company so much that, when spring came in 140 BC, he invited him on an ambitious mission to the East. Its stops included Egypt, Syria, Cyprus, and Rhodes as well as parts of Greece and Asia Minor. One source says the Senate sent the two men to observe how violent and lawless people there had become. In an age when many believed that the gods guided human affairs, Panaetius was a freethinker who dismissed soothsayers and astrologers, and Scipio probably expelled them from his army on his advice.

① 파나이티오스는 스키피오의 야망을 더욱 부추겼다.
② 파나이티오스는 성격이 침울해 친구가 거의 없었다.
③ 동방 사절단은 이집트를 거치지 않았다.
④ 스키피오는 기원전 140년 봄에 파나이티오스를 동방 사절단에 초대했다.
⑤ 스키피오는 점술가들을 군대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When Scipio died in 129 BC, the Republic and his friends lost a great deal. Panaetius had once taught his students a mental exercise for such moments. Imagine that your son has died, he told them; remind yourself that you always knew your child would one day die. The same lesson, he might have told himself, applies to friends and to careers. Everything comes to an end, and philosophy exists to remind us of this and to ready us for life's blows. In the same year Antipater died as well, and Panaetius returned to Athens to become head of the school. He served the Stoa for twenty more years, teaching and writing, and perhaps visited Rome from time to time to lecture or advise officials. He died in 109 BC.

① 파나이티오스는 스키피오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났다.
② 스키피오는 기원전 129년에 세상을 떠났다.
③ 파나이티오스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쓸 마음 훈련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④ 파나이티오스는 안티파트로스가 죽은 해에 아테네로 돌아갔다.
⑤ 파나이티오스는 학파의 수장으로 20년을 더 일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Back in Rome, Panaetius, Laelius, and Scipio formed a sort of philosophy club, ① called the Scipionic Circle by historians today. Its members gathered in Scipio's huge houses, ② where they discussed and argued about the Stoic ideas they shared. Scipio paid the costs, and Panaetius supplied the ideas. Many others who took part in these talks ③ were shaped by them, and the historian Polybius was often present. In time Scipio became the mightiest figure in the Greek world. Greek kings now bowed to Rome and to him like vassals, while Panaetius ④ serving as his translator, advisor, and confidant. Modern historians debate how often the group really met, but ancient writers had little doubt about ⑤ how important it was.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For reasons no one knows, Panaetius never completed the book. Even so, what he (A) [had / was] written was hailed as a remarkable achievement in his own lifetime. His student Publius Rutilius Rufus, who had fought for Scipio during the Numantine War, compared it to the Venus of Cos, a work (B) [which / whose] unfinished part no painter had ever dared to complete, because the beauty of the face made any attempt seem hopeless. In the same way, he explained, the excellence of (C) [that / what] Panaetius had finished kept anyone from trying to add the rest.

	(A)	(B)	(C)
①	was	whose	what
②	had	whose	what
③	had	which	that
④	had	whose	that
⑤	was	which	what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Panaetius left much unsaid, yet what he did establish allowed Stoicism to ① flourish in Roman politics for the next three centuries. Cicero tells us that Panaetius thought a good lawyer could defend a guilty client, so long as the client was not utterly wicked. The view fits his conviction that every person has a particular duty and role, and it has become a ② lasting pillar of legal practice: if no lawyer agrees to defend unpopular clients, who can be confident that justice is served? Panaetius also wrote and spoke in a ③ plain, direct manner, clearing philosophy of ④ arcane jargon and making it more accessible. Cicero praised him for being gentler in doctrine and more ⑤ obscure in style.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Chrysippus had pictured a runner who races hard but never shoves, and Antipater an archer who aims carefully yet cannot control where the arrow lands. Panaetius chose a different athlete: the pankratist, who fought in a Greek style of boxing. Even before a bout begins, the pankratist stands with his arms lifted, shielding his head and face, every limb ready either to dodge or to strike. The wise person's mind, Panaetius argued, should be just as watchful, never relaxing its guard against the blows of fortune and the traps of the wicked. For him, life was never just a private contest; it was real combat with opponents and with fate. We must therefore _____.

① avoid every contest that could possibly hurt us
② compete only against our own past selves
③ stay prepared for the blows that will surely come
④ trust that fortune will protect those who are wise
⑤ accept that hitting the target matters more than aiming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Panaetius, however, stood against this fellow Stoic, holding that the ruling class must protect public order.

In 138 BC Panaetius came back to Rome with Scipio and, now forty-seven, turned partly to writing. (①) Concerning Appropriate Actions, his greatest book, examined ethical conduct in public life, and it was anything but a purely theoretical work. (②) While he was completing it, Scipio, who still relied on his advice, brought several major corruption cases to trial, one of which involved the Gracchus affair. (③) That populist movement, which aimed to hand land to the poor, had been partly inspired by Antipater's ethics, and Antipater's student Blossius was one of its leaders. (④) Both Stoics, the revolutionary and the conservative, believed they were serving the state as duty required. (⑤) Such a clash was less a strange accident than a natural result of Stoicism's deepening role in politics.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Panaetius held that each person carries a distinct prosopon—a Greek word meaning one's character or part to play—which must be lived out with honor and bravery. ① To live ethically, he argued, we must balance four kinds of roles: those shared by all humans, those tied to our personal calling, those given by our social position, and those born of our promises. ② A soldier, for instance, has duties as a person, as a fighter, as part of a family, and as someone who has made promises. ③ Soldiers in the ancient world often marched great distances carrying heavy equipment. ④ The pieces differ for a ruler and a beggar, but the need for balance and guidance stays the same. ⑤ Thus Panaetius was a connector, linking lasting principles to real live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ile studying with Diogenes in Athens, Panaetius got to know another student, Gaius Laelius, and the two went on studying together.

(A) Once they were back in Rome, the three men began meeting regularly for philosophical discussions, and the Stoic teacher among them became the group's chief source of ideas.

(B) Through Laelius, and later while serving with the navy, Panaetius came to know Scipio Aemilianus, a great Roman general who loved Greek literature.

(C) Many others joined these gatherings, and the group, now known as the Scipionic Circle, turned into a training ground for a generation of leaders, much as PayPal would later produce Peter Thiel and Elon Musk.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early Stoics had a local streak. Zeno demanded that his hometown's name be carved beside his own on a building whose restoration he had funded. Cleanthes lived too frugally to travel, much less to care about foreign affairs, and even Diogenes hurried back to Athens after his visit to Rome. Such attitudes hardly suited a world empire. Panaetius was different, a globalist by birth. His life started in Rhodes, widened as he studied in Pergamum and Rome, and stretched over much of the Mediterranean, where he made friends with Romans drawn to the East. Yet he never forgot his roots. Offered Athenian citizenship, he politely refused, remarking that a sensible man needs only one city.

→ Unlike his more (A) _____ predecessors, Panaetius embraced the wider world while remaining (B) _____ to his homeland.

① provincial ..... loyal
② ambitious ..... indifferent
③ provincial ..... hostile
④ cosmopolitan ..... loyal
⑤ cosmopolitan ..... indifferent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Panaetius, a diplomat's son, was born in Rhodes. Through a lucky diplomatic connection, he first studied philosophy under Crates in Pergamum. In Rome, he, Laelius, and Scipio formed a club now called the Scipionic Circle. Although he was a born globalist, he turned down Athenian citizenship. In 140 BC, he joined Scipio on an embassy to the East. He compared the wise person to the pankratist, an athlete always ready for blows. He died in 109 BC.

<QUIZ>

(1) Where was Panaetius born?
Answer for (1): _____

(2) Who first taught Panaetius philosophy?
Answer for (2): _____

(3) What is Scipio's club called today?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Panaetius accepted Athenian citizenship?
Answer for (4): _____

(5) In what year did he join the eastern embassy?
Answer for (5): _____

(6) Which athlete did he compare the wise to?
Answer for (6): _____

(7) In what year did Panaetius die?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Pergamum	N. the Senate
B. Rhodes	O. Lindos
C. Diogenes	P. the runner
D. False	Q. 185 BC
E. the pankratist	R. Crates
F. 138 BC	S. 109 BC
G. 140 BC	T. Laelius
H. Athens	U. 155 BC
I. the Scipionic Circle	V. the javelin thrower
J. True	W. Polybius
K. the archer	X. Alexandria
L. Antipater	Y. the Academy
M. 129 BC	Z. forty-seven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스토아는 그보다 13년 앞서 로마에 잠깐 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른다. (may have p.p. / make an appearance)

02 넘어져 다리가 부러진 크라테스는 몇 달 동안 회복하며 지냈다. (분사구문 / spend + 시간 + -ing)

03 그에게 더 정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가주어 it + that절 / formal education)

04 그것은 그의 아버지도 스승들도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을 영향력이었다. (neither A nor B / could have p.p.)

05 시기가 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다. (could not have been + 비교급)

06 클레안테스의 검소한 생활에는 여행할 여유가 거의 없었고, 국제 정세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없었다. (let alone / little room for)

07 그는 흥을 깨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다면 그토록 활기찬 교우 관계를 가꿀 수 없었을 것이다. (or + would not have p.p. / wet blanket)

08 스키피오가 점술가들을 군대에서 몰아낸 것은 아마 그의 조언 때문이었을 것이다. (It was ~ that 강조 / ban A from B)

09 그것은 역사의 이상한 우연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not so much A as B / outgrowth)

10 그가 친구들에게 가리킨 것은 바로 타고난 자원이었다. (It was ~ that 강조 / point A to B)

11 아무도 그가 남긴 부분을 감히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venture to V / what(관계대명사))

12 좋은 삶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균형 속에서이다. (It is in ~ that / be found)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파나이티오스의 출생·사망 연도 / 출신 / 발음	
첫 스승 / 그의 출신 / 로마에 간 시점	
크라테스가 로마에 오래 머문 이유 / 그때 로마에 있던 사람	
첫 공직 / 연도 / 장소	
아테네의 두 스승 / 유학 기간 / 스토아의 방식	
아테네에서 만난 동료 / 그를 통해 만난 장군 / 함께 복무한 곳	
세 사람의 모임 이름 / 모인 곳 / 비용과 지적 양식	
서클에 자주 참석한 두 사람	
스키피오가 늘 곁에 둔 두 천재 / 기록자	
저자가 파나이티오스를 부른 비유	
초기 스토아의 지역주의 예 셋	
아테네 시민권에 대한 답	
동방 사절단의 해 · 계절 / 기간 / 현대식 이름	
알렉산드리아의 수행원 / 걷지 못한 왕	
로마 귀환 연도 / 나이 / 가장 중요한 책	

항목	답
그라쿠스 사건에서 맞선 두 스토아	
세 가지 그리스어 개념	
네 가지 역할	
삶의 모델로 삼은 운동선수 / 기록자	
미완성 책을 빗댄 작품 / 그렇게 말한 제자	
덕에 대한 새 주장 / 기록자 / 스키피오 사망 이후	

4-3. 통합 사고 문제 — 7장과 8장을 잇는 자리

문제

7장에서 안티파트로스가 덕을 추구하는 인간을 '궁수'에 빗대어, 훈련하고 겨누어도 화살이 어디에 맞을지는 우리 통제 밖에 있다고 한 일(58쪽 ¶3~¶4)과, 8장에서 파나이티오스가 덕 있는 삶의 모델로 '판크라티스트'를 들어 언제나 팔을 들고 타격에 대비하라고 한 일(66쪽 ¶8 ~ 67쪽 ¶2)을 비교하여, 파나이티오스가 본 삶의 성격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7장 또는 8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삶의 성격: For Panaetius, life was not just a contest with oneself but actual _____.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